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천년의 기록, 내일을 열다

초조대장경 판각 천년 기념 특별전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
初雕本 瑜伽師地論 卷五十三
First Edition Tripitaka Koreana,
Yuga saji ron (Discourse on the Stages of Concentration Practice),
Fascicle 53



瑜伽師地論卷第五十三

弥勒菩薩說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攝史擇分中五識身相應地意地之三

復次云何表業謂略有三種一染汗
二善三無記若於身語意十不善業
道不離現行增上力故所有身語表
業名染汗表業若即於彼擗受遠離
所有身語表業名善表業若諸威儀
路工巧處一分所有身語表業名无
記表業若有不欲表亦於他唯自起
心內意思擇不說語言但發善染汗
无記法現行意表業名意表業此中
唯有身餘處滅於餘處生或即此處
唯變異生名身表業唯有語音名語
表業唯有發起心造作思名意表業
何以故由一切行皆剎那故從其餘
方從至餘方不應道理又難唯諸行
生餘實作用由眼耳意皆不可得是
故當知一切表業皆是假有復次若
有生不律儀家有所了別自發期心
謂我當以此活命事而自活命又於

此活命事重復起心欲樂忍可尔時

說名不律儀者由不律儀所攝故極
重不如理作意損害心所攝故但成
廣大諸不善根然未成就然生所生
及餘不善業道所生諸不善業乃至
所期事未現行後若現行若少若多
隨其所應更復成就諸不善業如生
不律儀家如是隨是何人隨由何事
起史猛心廣說應知此人乃至不律
儀思未捨已來常得說名不律儀者
於日分彼不善思廣積集故彼不
善業多現行故當知非福運運增長
復次此邪惡願思恒與不信懈怠忘
念散乱惡慧俱行能受彼業能發彼
業從此已後由種子故及現行故處
相續中現在轉時名不律儀者乃至
由捨因緣未捨未棄此中若於惡業
後不愛果不信不解亦不隨入是名
不信若隨所欲於彼惡業慧樂而轉
不能勤勵息滅彼業是名懈怠若與
過失相應於有罪法不能如實明記
有罪是名忘念若散乱染汗心相續
不安任轉是名散乱若顛倒心相續

而轉於諸過失見勝功德是名惡慧

由惡尸羅增上力故所有不善思俱
行不善不信等現在轉時名惡戒者
若與此相違如其所應當知得有律
儀隨轉差別者謂有堪受律儀方可

善業... 惡業...

2011.
11.
15^火
|
2011.
12.
18^日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Tel. 042 481 4650 / www.cha.go.kr

국립고궁박물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Tel. 02 3701 7500 / www.gogung.go.kr

국보 제276호
고려초기(11세기)
1권 1축
목판본

전체 28.4x1,118.4cm
각장 28.4x48.0cm, 24장
권자장
가천박물관

고려는 불교를 국가 통치이념으로 삼고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불교사상은 고려문화의 원동력이었고, 그 가운데 대장경 사업이 이루어졌다. 북송에서 971년 판각에 착수하여 983년에 완성시킨 동양 최초의 대장경인 개보칙판開寶勅板이 성종10년(991) 고려에 도입되자 불교국가인 고려도 이를 판각하여 문화국으로서의 위력을 떨치고자 했을 것이다. 아울러 당시에는 거란의 외침이 잦았는데, 대장경 판각을 통해 불력佛力으로 국난國難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거국적 발원으로 현종2년(1011) 무렵 초조대장경 판각에 착수하여 현종재위기간에 상당한 수량의 대장경이 판각되었다.

현종 이후 덕종, 정종 재위기간에는 대장경 간행에 관한 뚜렷한 기록이 없다가 문종17년(1063) 거란대장경이 도입된 이후 대장경 판각사업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거란대장경契丹大藏經은 초조대장경의 착수시기보다 늦은 1031년에 판각을 시작하여 1054년에 대체로 완성한 것인데, 이것이 1063년 고려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거란판에 의한 판각은 북송 개보칙판에 수록되지 않았거나, 진도轉倒·착사錯寫·오류誤謬 혹은 이역異譯이 있는 것을 보충하거나 대체 또는 추가 편입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국내진본과 송조대장경宋朝大藏經에 의한 판각이 보태졌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一
First Edition Tripitaka Koreana,
Dae banggwangbul hwaeom gyeong (Flower Ornament Sutra),
Second Zhou Dynasty Translation, Fascicle 1



국보 제256호	전체 28.5×223.5cm
고려초기(11세기)	각장 28.5×46.5-47.5cm, 26장
1권 1축	권자장
목판본	가천박물관

초조본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양경 권6
初雕本 佛說最上根本大樂金剛不空三昧大教王經 卷六
First Edition Tripitaka Koreana,
Bulseol choesang geunbon daerak geumgang bulgong sammae daegyowang gyeong (Ardhasatika Prajnaparamita Sutra), Fascicle 6



국보 제269호	전체 29.8×1,130cm
고려시대(12세기)	각장 29.8×47.1cm, 24장
1권 1축	권자장
목판본	호림박물관

이후 선종4년(1087) 2월 개국사開國寺에서 대장경의 판각을 경축하였고, 3월에는 흥왕사興王寺에서 경판을 간직하는 대장전大藏殿의 낙성을 경축하였으며, 4월에는 귀법사歸法寺에서 다시 대장경의 판각을 경축하였다. 이장移藏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부인사符仁寺로 옮겨진 대장경은 고종19년(1232) 몽고군에 의해 불타버렸다. 이규보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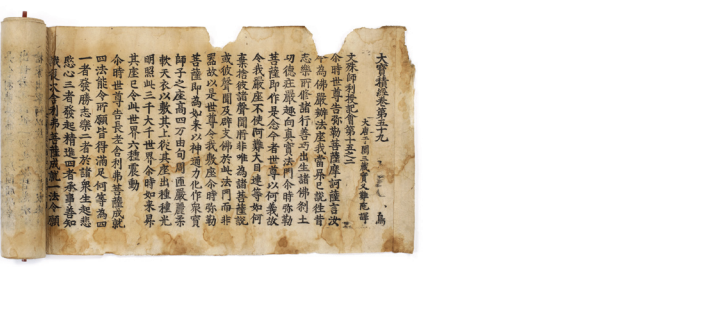
“심하도다, 달단達扈(몽고)이 환란을 일으킴이여!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고 혼매함도 금수禽獸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의 공경하는 바를 알고, 이른바 불법佛法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지나는 곳마다 불상佛像과 범서梵書를 마구 불태우고,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된 대장경大藏經 판본도 또한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아, 여러 해 동안 이런 공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렸으니, 나라의 큰 보배가 상실되었습니다.”

초조본 불설가섭부불난열반경
初雕本 佛說迦葉赴佛般涅槃經
First Edition Tripitaka Koreana,
Bulseol gaseopbu bulban yeolban gyeong (Parinirvana Sutra)



보물 제1646호	전체 29.4×167.7cm
고려시대	권자장
1권 1축	불교중앙박물관
목판본	

초조본 대보적경 권59
初雕本 大寶積經 卷五十九
First Edition Tripitaka Koreana,
Dae bojeok gyeong (Sutra of the Great Accumulation of Treasures), Fascicle 59



국보 제246호	전체 30.0×768.3cm
고려초기(11세기)	각장 30.0×47.0cm, 23장
1권 1축	권자장
목판본	국립중앙박물관

初雕大藏經